*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numbers
vol. 287

한국교회 Z세대(20대) 실태

Z세대 포용을 위한 교회의 과제, 목회자·Z세대 모두 ⇒ '소통'!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
② 한국인의 울분(화병) 실태

2025.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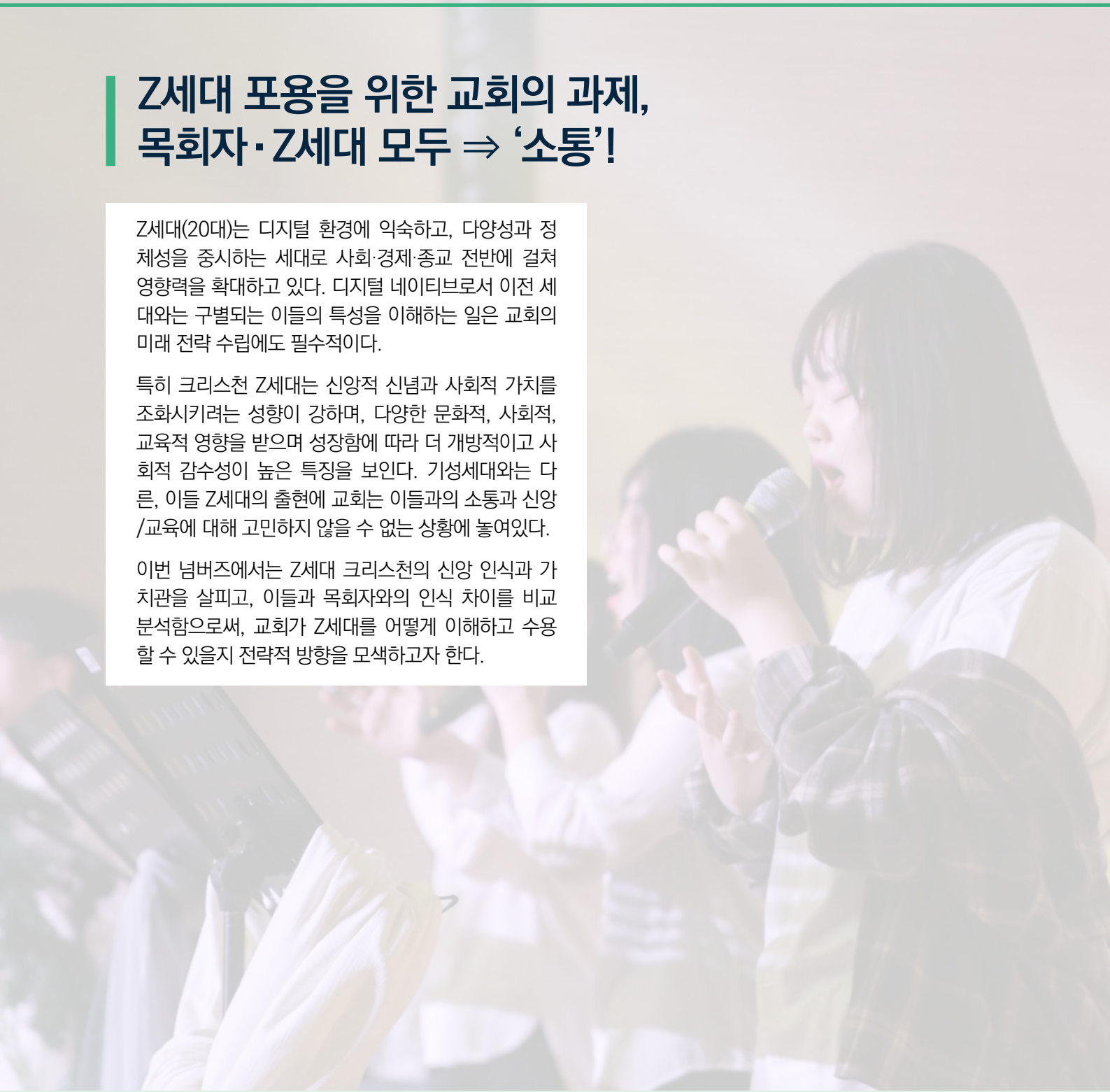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Z세대 포용을 위한 교회의 과제, 목회자·Z세대 모두 ⇒ '소통'!

Z세대(20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다양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사회·경제·종교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은 교회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필수적이다.

특히 크리스천 Z세대는 신앙적 신념과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며,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함에 따라 더 개방적이고 사회적 감수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들 Z세대의 출현에 교회는 이들과의 소통과 신앙/교육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Z세대 크리스천의 신앙 인식과 가치관을 살피고, 이들과 목회자와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회가 Z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Z세대(20대)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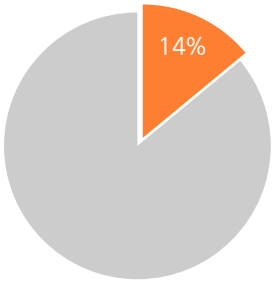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 분	Z세대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29세 기독교인 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법을 가정할 경우 ±4.4%p	-
표본 추출	성/지역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 6월 3일 (총 11일간)	2024년 5월 23일 ~ 6월 3일 (총 12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기아대책 / 월드비전	
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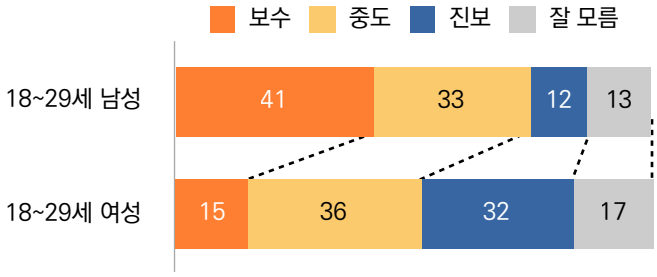
01 [한국 Z세대 일반 특성]
한국 Z세대, 20대 남성(이대남)은 보수, 여성(이대녀)은 진보 뚜렷!

- 한국의 Z세대(20대)는 2025년 4월 현재 기준, 약 58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 20대 남녀 정치 이념은 서로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였다.

[그림] 한국 성인 인구 중 Z세대 비중



[그림] 한국 Z세대(20대) 남녀 정치 이념 (2025년 4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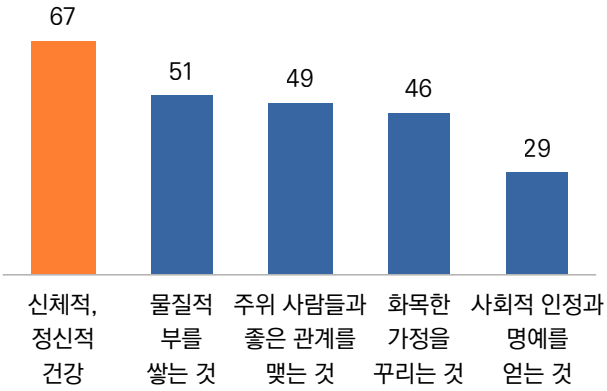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2025년 4월 기준)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21호(2025년 4월 4주), 2025.05.25.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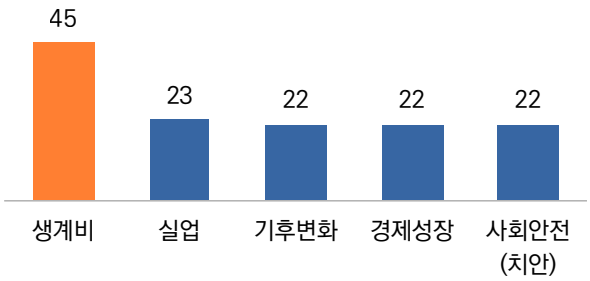
Z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1순위는 '건강'!

- Z세대(18~29세 청년)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 물질적 부' 51%,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49% 등의 순이었다.
- 한편 Z세대 최대 관심사로는 '생계비'가 45%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 23%, '기후변화' 22%, '경제성장' 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계비, 실업, 경제성장 등 경제 관련 이슈가 상위권에 오른 점은 Z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Z세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상위 5개, 1+2+3순위, %)



[그림] Z세대 최대 관심사 (상위 5개,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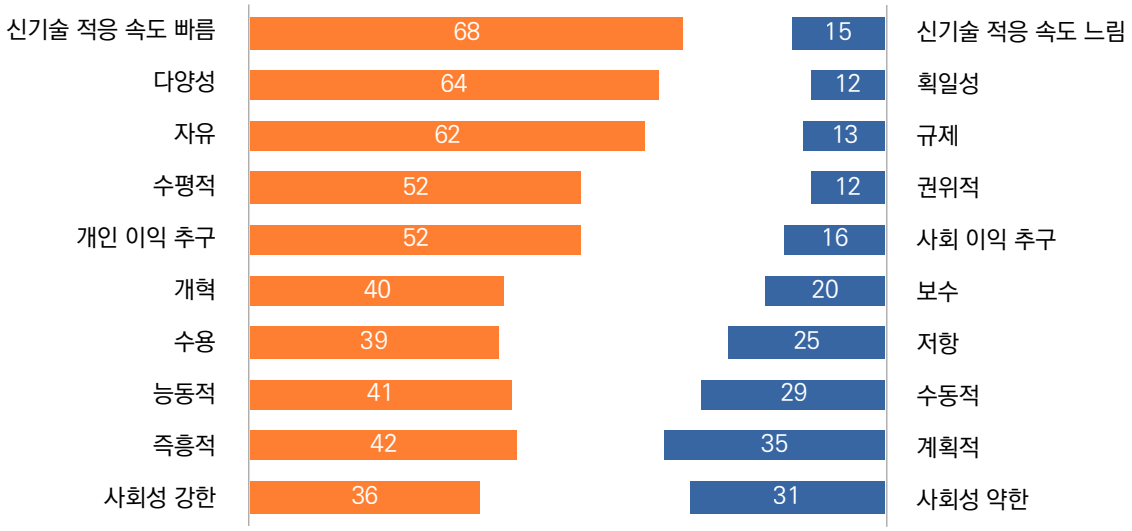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인간관계의 형태와 스타일, 2024.11.27.(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0.11.~10.14.)
※출처 : 딜로이트, 딜로이트 글로벌 2024 MZ 서베이, 2024.05.(한국 조사: Z세대 300명, 밀레니얼 세대 200명, 온라인 및 셀프 인터뷰 형식, 2023.11.24. ~2024.03.11.)

Z세대가 인식하는 Z세대 성향, '신기술 적응, 다양성, 개인주의, 자유'!

- 이제 Z세대의 성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Z세대들에게 상반되는 10개 단어 쌍을 제시하고, 본인의 특징과 더 가까운 단어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Z세대는 '신기술 적응 속도가 빠르며'(68%),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64%)하고, '규제보다는 자유를 선호'(62%)한다고 응답했다. 또,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52%)이고, '사회 이익보다는 개인 이익을 추구'(52%)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Z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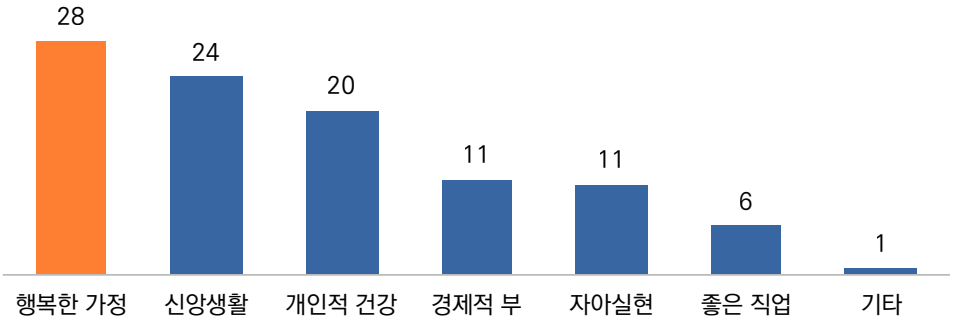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오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웹조사, 2023.02.10.~02.27.)
*5점 척도로 두 개의 상반된 단어 쌍을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가까움(매우+어느 정도)을 선택한 비율

02 [Z세대 크리스천, 삶과 사회인식]
Z세대 크리스천, '부(富)'보다는 '행복한 가정과 신앙생활' 중시!

- Z세대 크리스천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가정'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신앙생활' 24%, '개인적 건강' 20%, '경제적 부' 11%가 그 뒤를 이었다.
- 이를 통해 Z세대 크리스천은 물질적 성공보다는 행복한 가정, 건강, 신앙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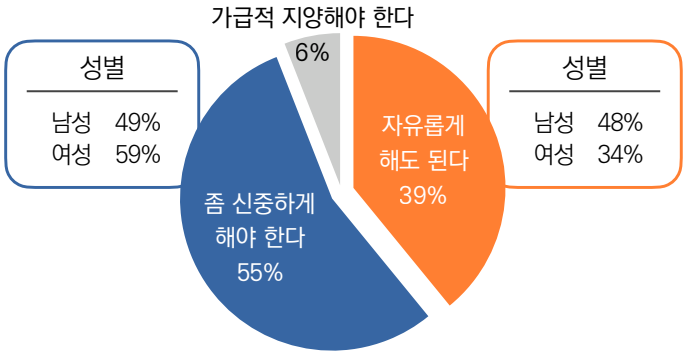
[그림]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Z세대 교회 출석자, 1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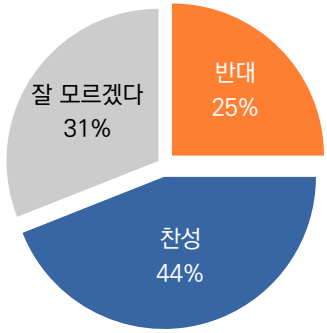
Z세대 크리스천 4명 중 1명, 혼전 순결 '반대'!

- 교회 내 이성 교제에 대해 Z세대에게 물은 결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자유롭게 해도 된다'(39%)보다 높았다. 특히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자유롭게 해도 된다'의 경우, 남성 48% 여성 39%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찬성'(매우+찬성하는 편 비율) 44%, '반대' 25%, '잘 모르겠다' 31%로 나타났다. Z세대 크리스천 4명 중 1명(25%)은 혼전 순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내 이성 교제에 대한 생각 (Z세대 교회 출석자)



[그림]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
(Z세대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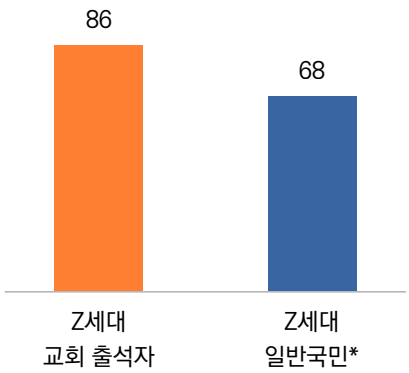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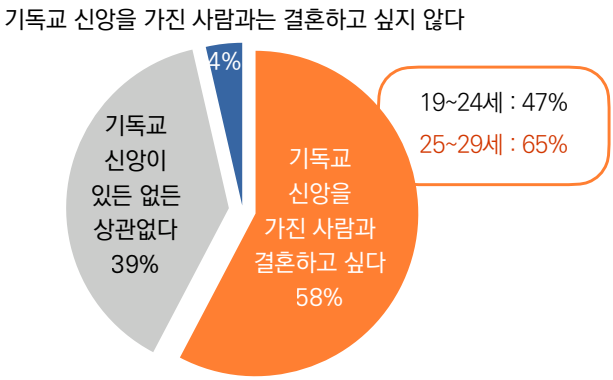
결혼 의향, Z세대 크리스천이 일반 Z세대보다 더 높다!

- 미혼 Z세대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의향을 조사한 결과, Z세대 교회 출석자의 86%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Z세대 일반국민 20대* 68%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크리스천 Z세대가 결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장래 배우자의 신앙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가 58%,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39%로 나타나 같은 신앙인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인과 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20대 전반(47%)보다는 20대 후반(65%)에서 더 높아, 연령이 올라갈수록 신앙의 일치가 결혼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향후 결혼할 의향 (20대 미혼자, '있음' 비율**, %)



[그림] 장래 배우자의 종교
(Z세대 미혼자 중 결혼 의향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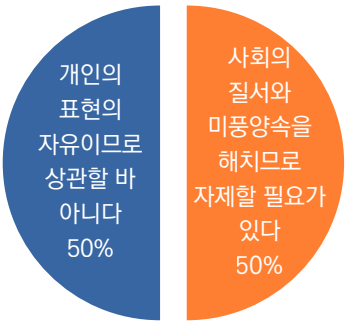


*일반국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2024.12.(19~49세 현재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7,861명, 가구방문 조사, 2024.08.09.~2024.11.13.)
**Z세대 미혼 교회 출석자는 4점 척도(전혀 없음, 별로 없음, 어느 정도 있음, 매우 있음), Z세대 미혼 일반국민은 5점 척도(있음,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 함)로 해석에 유의 요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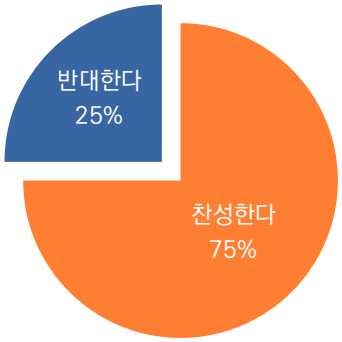
Z세대 크리스천 50%,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

- Z세대 크리스천 대상으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사회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가 각각 50%씩 응답됐다. 이는 크리스천이기 이전에 20대로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이번에는 '회사에서 직급 대신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Z세대 3명 중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권위적인 모습보다 수평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Z세대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인식 (Z세대 기독청년)



[그림] 직급 없는 회사에 대한 인식 (Z세대 기독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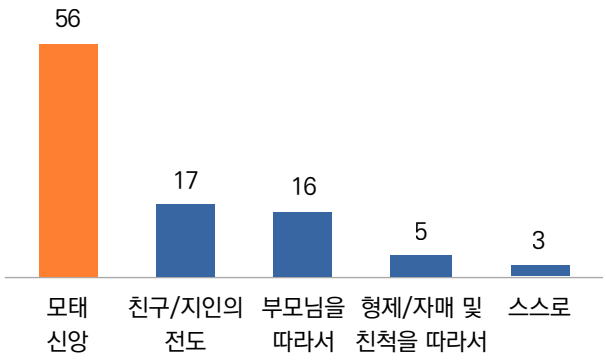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04.(전국 만 19~34세 기독교인 남녀 1,000명/Z세대:19~29세 647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5p, 'Z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향'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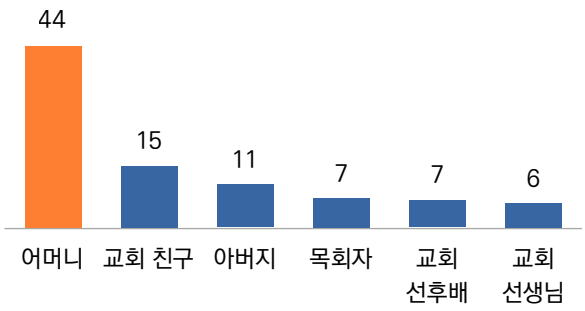
03 [신앙생활과 교회 인식]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 준 사람, '어머니' 44%!

- Z세대가 교회 나오게 된 계기로는 '모태신앙'이 56%로 가장 많았고, 친구/지인의 전도 17%, 부모님을 따라서 16% 등의 순이었다. '모태신앙', '부모님을 따라서'를 합하면 72%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셈이다.
-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도 '어머니'가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 친구' 15%, '아버지' 11%, '목회자' 7%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서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교회 선생님'은 6%로 신앙생활에 있어 영향력이 낮은 편이었다.

[그림] 교회 출석 계기 (Z세대 교회 출석자,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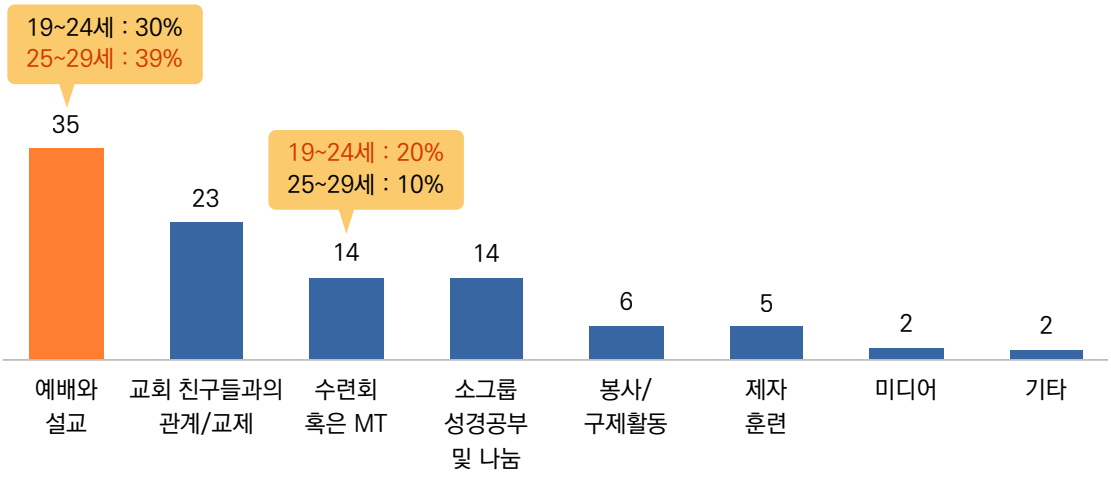
[그림]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사람 (Z세대 교회 출석자, 상위 6개, %)



Z세대 3명 중 1명 이상, '예배와 설교'에서 신앙 성장 경험!

-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교회 활동으로 크리스천 Z세대 3명 중 1명 이상(35%)이 '예배와 설교'를 꼽았다.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교제'(23%), '수련회 혹은 MT'(14%) 등보다 예배와 설교가 더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다만 연령별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전반(19~24세)은 '수련회 혹은 MT'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고, 20대 후반(25~29세)은 '예배와 설교' 지적률이 높아, 향후 연령대별 차별화된 신앙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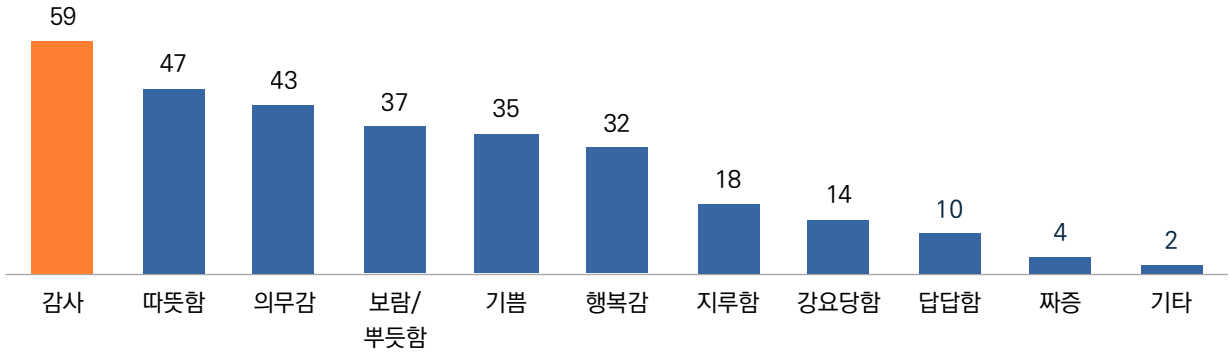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Z세대 교회 출석자, %)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함'과 동시에 '의무감'도 느껴!

- 출석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Z세대에게 물었다. 그 결과, '감사' 59%, '따뜻함' 47%, '보람/뿌듯함' 37% 등 긍정적 감정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의무감'이 3순위인 점이 눈에 띈다.
- 이는 가족 종교화 조사(넘버즈 286호)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자녀들이 타율적 혹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교회에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해야 하는 일'로 느끼는 양가감정이 Z세대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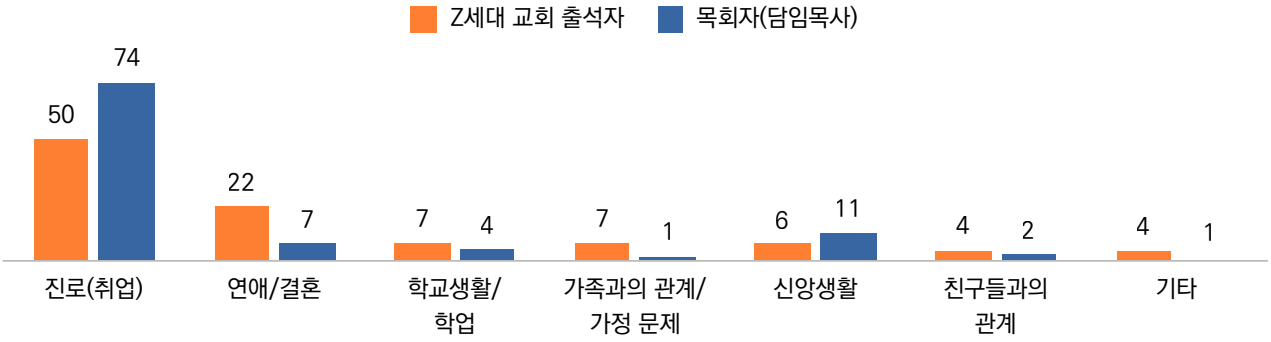
[그림] 교회에 대한 감정 (Z세대 교회 출석자, 1+2+3순위, %)



04 [Z세대의 자기 인식 vs 목회자가 바라보는 Z세대]
Z세대 크리스천의 고민, '연애/결혼' 비중 목회자 예상보다 높아!

- Z세대 크리스천의 실제 고민과 목회자가 예상한 Z세대의 고민을 비교한 결과, Z세대는 '진로(취업)'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으며(50%), 이어 '연애/결혼' 22%, '학교생활/학업' 7%, '가족과의 관계/가정 문제' 7% 순이었다.
- 반면, 목회자(담임목사) 역시 '진로(취업)'를 74%로 가장 높게 예상했고, 그다음으로 '신앙생활' 11%, '연애/결혼' 7%라고 응답해, 목회자들은 Z세대가 느끼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의 비중을 다소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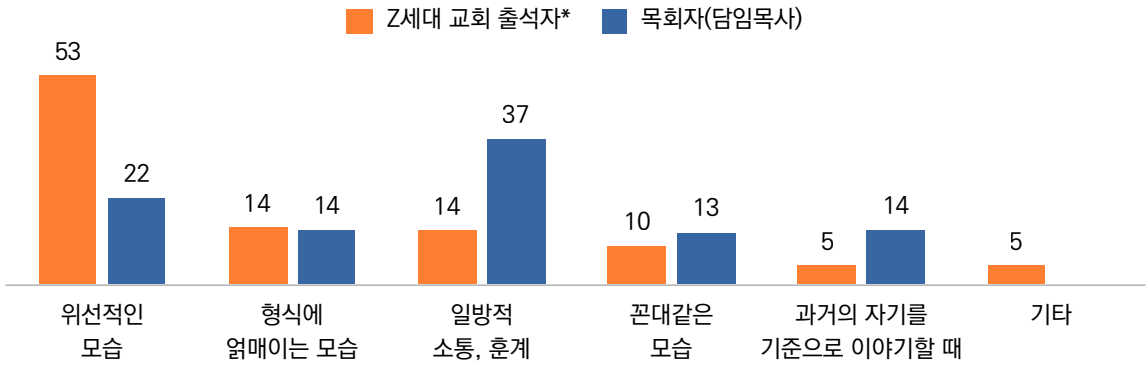
[그림] 현재 고민 vs Z세대 고민 예상 (상위 5개, %)



Z세대가 실망하는 교회 어른의 모습, '위선'!

- Z세대가 교회 목회자나 어른에게 실망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모습에서 실망했는지를 물은 결과, '위선적인 모습'(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14%), '일방적 소통, 훈계'(14%) 등의 순이었다.
- 반면, 동일 선택지를 갖고 목회자들(담임목사)에게 Z세대를 대할 때 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을 물은 결과, '일반적 소통, 훈계'(37%)를 가장 많이 꼽아 Z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Z세대는 '진실성 부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목회자는 '소통의 방식'을 문제라 여기는 것이다.

[그림] 교회 목회자/어른에게 실망한 모습 vs Z세대를 대할 때 개선되어야 할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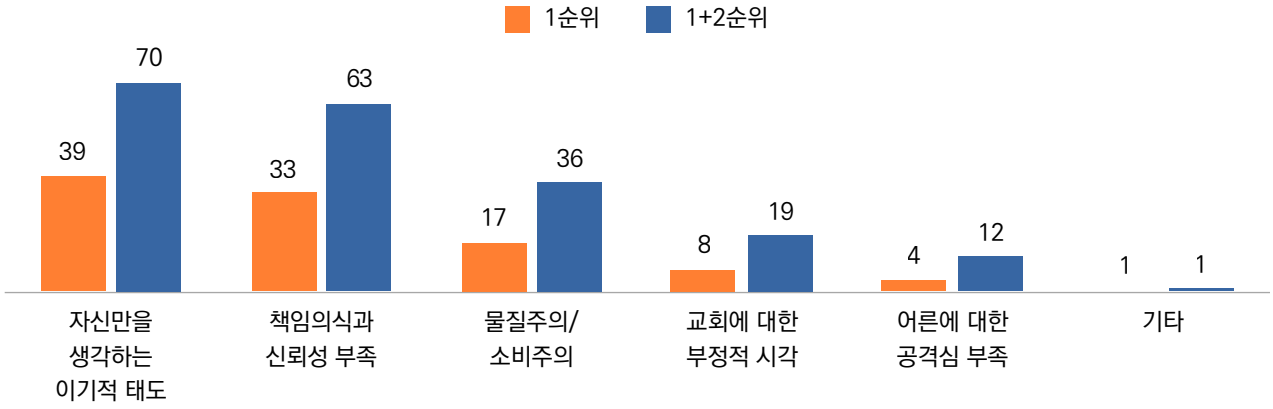


*교회 목회자/어른에게 실망한 Z세대 대상 질문임

목회자가 보는 Z세대, '이기적·책임감 부족'!

- Z세대의 이해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목회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1+2순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태도'(70%)를 가장 크게 지적했다. 다음으로 '책임의식과 신뢰성 부족' 63%, '물질주의/소비주의' 36%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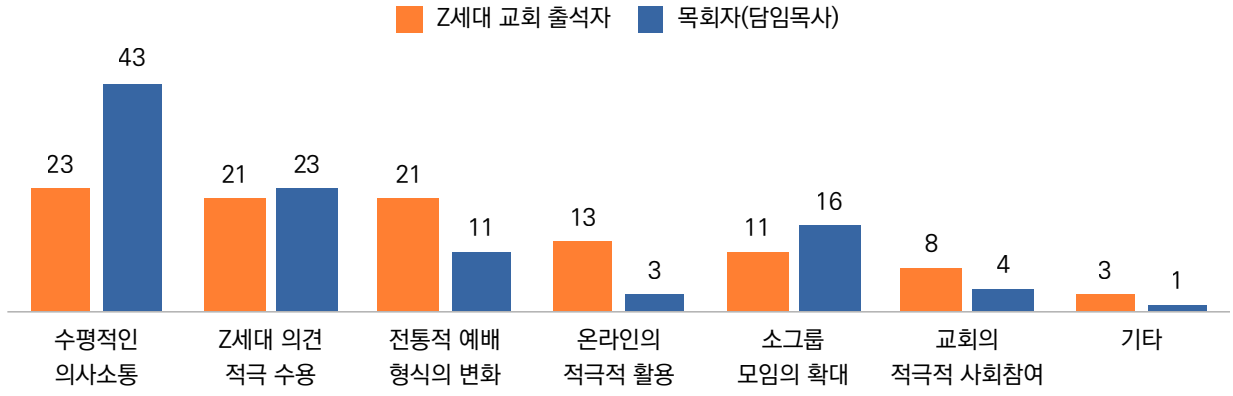
[그림] 이해되지 않는 Z세대의 사고/행동 방식 (목회자, %)



Z세대 포용을 위한 교회의 과제, 목회자·Z세대 모두 ⇒ '소통'!

- 교회가 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Z세대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23%, 'Z세대 의견 적극 수용' 21%,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 21%를 주요 과제로 응답했다.
- 목회자(담임목사) 역시 '수평적인 의사소통'(43%)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이어 'Z세대 의견 적극 수용' 23%, '소그룹 모임의 확대' 16% 순이었다.
- Z세대와 목회자 모두 '소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Z세대는 '예배 형식의 변화'에도 기대를 갖고 있어 교회는 서로 간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Z세대 포용을 위한 교회의 중점 사항 (%)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Z세대가 실망하는 교회 어른의 모습 '위선'!

- 교회 목회자나 어른에게 실망한 적이 있는 Z세대를 대상으로 어떤 모습에서 실망했는지를 물은 결과, '위선적인 모습'(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일 선택지를 가지고 담임목사에게 Z세대를 대할 때 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을 물었더니 '일방적 소통, 훈계'(37%)를 1위로 꼽아 청년과 목회자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2. 목회자가 보는 Z세대, '이기적, 책임감 부족'!

- 목회자가 생각하는 Z세대의 이해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행동(1+2순위)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태도' 70%, '책임의식과 신뢰성 부족' 63%, '물질주의/소비주의' 36% 등의 순이다.

3. Z세대 포용을 위한 교회의 과제, 목회자·Z세대 모두 ⇒ '소통'!

- 교회가 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중점을 둬야 할 점에 대해 Z세대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23%, 'Z세대 의견 적극 수용' 21% 등을 주요 과제로 응답했고, 목회자(담임목사) 역시 '수평적인 의사소통'(43%)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이젠 2000년생이다 (허두영 저, 데이비드스톤)

관련 성경 구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목회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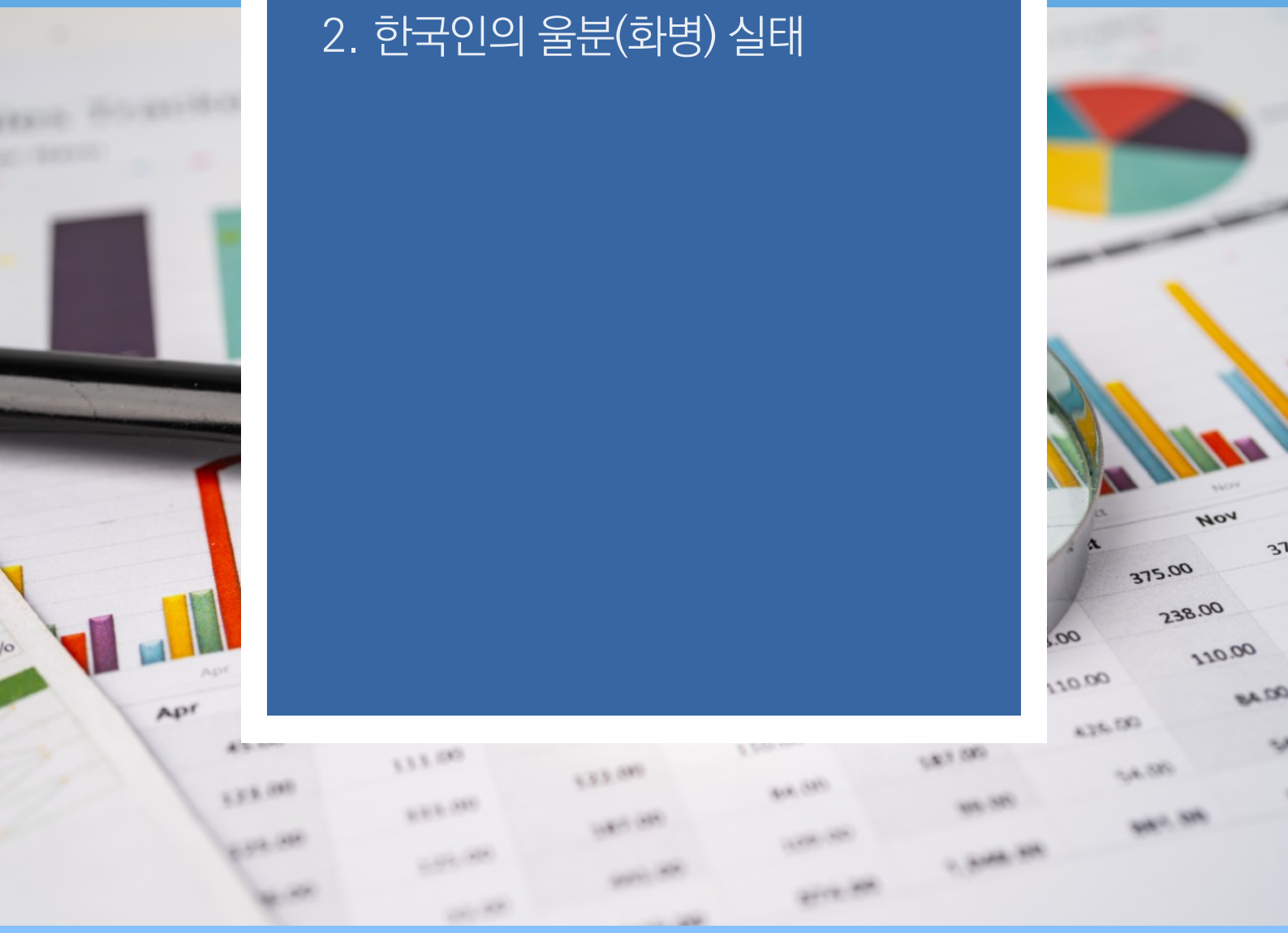
Z세대를 향해 한국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는 이번 넘버즈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Z세대와 목회자 모두 교회가 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Z세대는 '수평적 소통'(23%)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태도'(21%)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목회자 역시 '수평적 소통'(43%)을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로 인식했다. 이는 세대 간 공감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Z세대는 권위보다 수평적 관계, 명령보다 공감을 중시한다. 목회자는 단순한 지시자가 아닌, 경청하고 대화하며 함께 신앙을 고민해주는 동행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설교와 교육, 사역 구조 전반에 Z세대의 언어와 정서, 그리고 질문을 담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실제 교회 운영에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소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회가 세대와 함께 살아가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의 표현이다.

서울의 모교회는 청년부 임원과 당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미팅하는 공식적 회의체인 '청년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이 위원회 가동 후 청년부가 부흥한 사례가 있다. 지금 한국교회 Z세대 사역에 있어 필요한 것은 가르침보다 경청에서 시작되는 관계적 목회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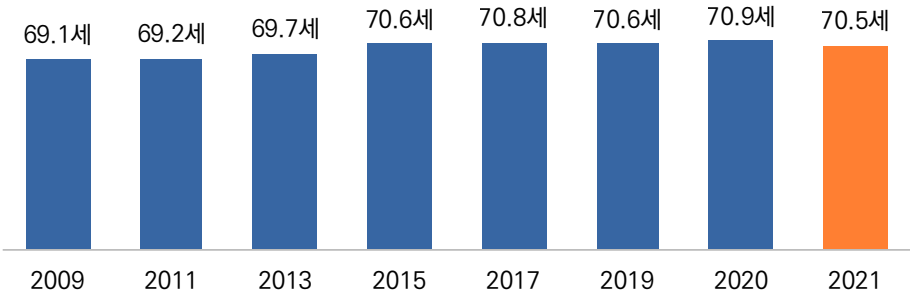
1.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
2. 한국인의 울분(화병) 실태



[한국인의 건강 · 기대수명]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 한국인 평균 70.5세!

-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본다(건강수명 통계집,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9년 69.1세에서 2021년 70.5세로 코로나 시기 소폭 줄기도 했으나(2020년 70.9세→2021년 70.5세),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건강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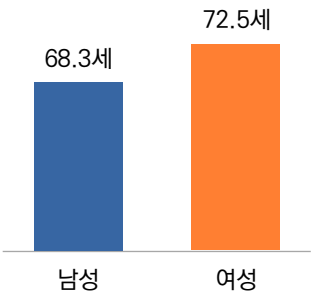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수명 통계집,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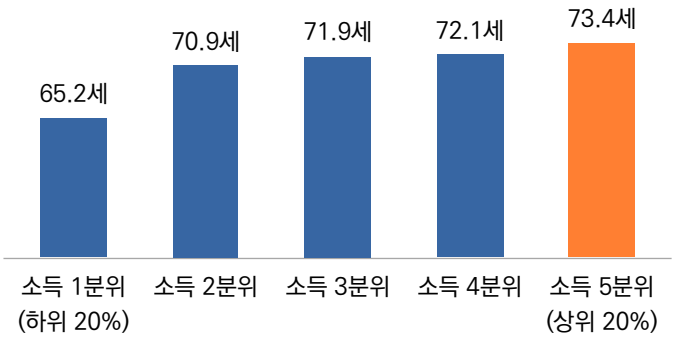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산다!

- '성별' 건강수명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남성 68.3세, 여성 72.5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었다.
-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 1분위 저소득층(하위 20%)의 경우 건강수명이 평균 65.2세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상위 20%)은 평균 73.4세로 무려 8살 이상 차이가 벌어진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별' 건강수명 (2021)



[그림] '소득 분위별' 건강수명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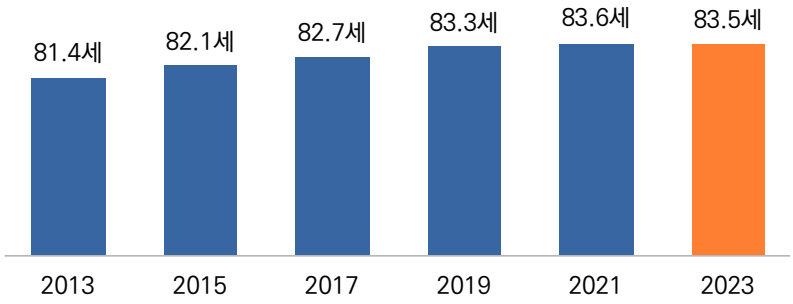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수명 통계집, 2023.12.

한국인의 기대수명, 2023년 83.5세로 꾸준히 증가세!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2013년 81.4세에서 2015년 82.1세, 2017년 82.7세, 2019년 83.2세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기대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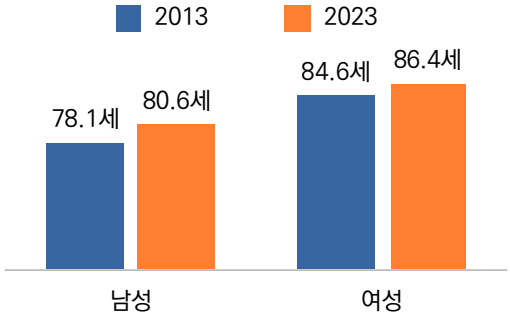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지표누리(생명표), 기대수명, 2025.05.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4)

여성 기대수명 86.4세로 남성 80.6세보다 6년 정도 더 산다!

- 2013년과 2023년 10년 사이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남성은 2013년 78.1세에서 2023년 80.6세로 10년간 기대수명이 2.5세 늘었고, 여성은 2013년 80.6세에서 2023년 86.4세로 1.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사는 셈이다.
- 한편 남녀 기대수명 간 격차는 소폭(6.5세→5.8세) 감소했다.

[그림] '성별' 기대수명 (2013 v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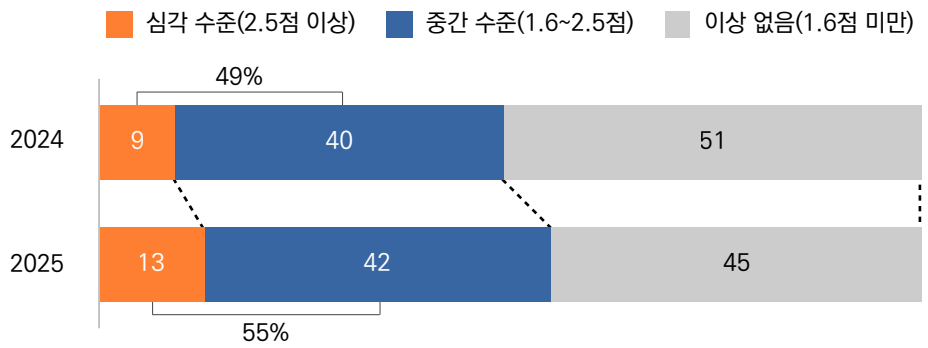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지표누리(생명표), 기대수명, 2025.05.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4)

[한국인의 울분(화병) 실태]
한국 성인 55%, 만성적 울분(답답+분함) 상태!

- 한국인의 울분 상태를 조사한 재미있는 결과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울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답답하고 분함을 뜻하는데, 화병 혹은 울화병과 비슷한 말이다.
-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상후 울분장애 측정 도구를 통해 5점 척도(0: 전혀 없음 ~ 4: 아주 많이 있음)로 답하게 한 결과, 국내 성인의 울분 수준은 2025년 기준 '중간 수준 울분'(1.6~2.5점) 42%, '심각한 울분'(2.5점 이상) 13%로 국민 절반 이상(55%)이 '장기적 울분 상태'(1.6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장기적 울분 상태는 2024년 49%에서 2025년 55%로 1년사이 6%p 높아진 수치이다.

[그림] 국내 성인 울분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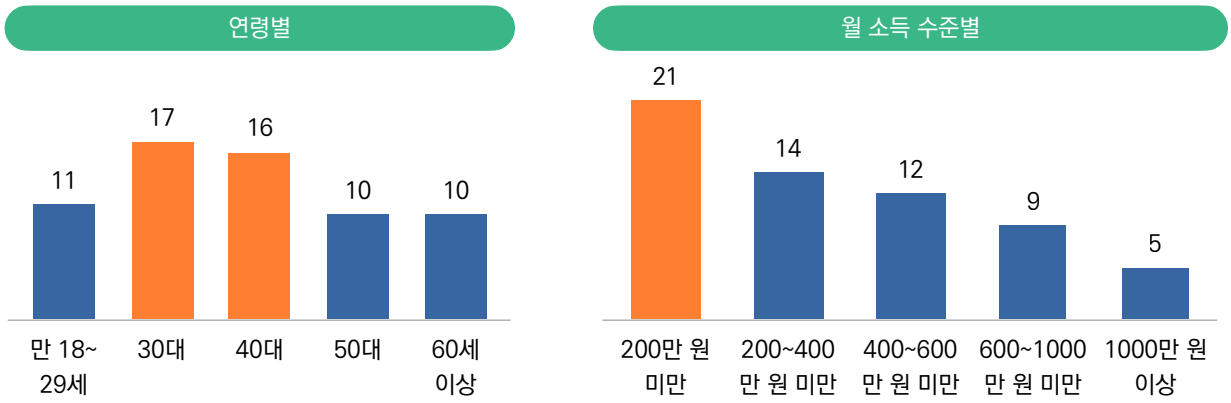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도자료,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 2024.05.06.(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웹 조사, 2025.04.15.~04.21.)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 도구 한국어판 도구로 측정했음.
지난 1년 동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대하여 총 19개 사안을 제시하고 5점 리커트 척도(0~4점)로 응답함.

30~40대 · 저소득층에서 '심한 울분' 비율 더 높다!

- '심각한 울분' 비율은 연령과 소득 수준별 차이를 보였는데,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7%, 16%로 가장 높았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가 21%로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 5%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연령별/월 소득 수준별 '심한 울분'(2.5점 이상) 비율 (%)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도자료,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 2024.05.06.(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웹 조사, 2025.04.15.~04.2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2호 (2025년 5월 3주)

- 대선 후보 지지도, 후보별 지지 이유, 경제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5호 (2025년 5월 3주)

- 대선 투표 의향, 대통령 후보 지지도, 대선후보 호감도 등

이준석 67% 대선후보 비호감 1위…2위는 누구?

한겨레_2025.5.16.

사회 일반

작년 현금 이용 비중 10%대로 '뚝'…7년 만에 반토막

연합뉴스_2025.5.15.

"5월 15일, 스승의 날 말고 무슨 날?"… 10명 중 7명 몰랐다는 정답

조선일보_2025.5.13.

교사 90% "저연차 교직 이탈 심각"… "교권 침해 탓" 첫손 꼽아

동아일보_2025.5.13.

여성 절반 "부부 수입 각자 관리해야"…성별 역할 인식도 변화

연합뉴스_2025.5.14.

'평생 무자녀' 비율 韓 2배인데…日 출산율은 훨씬 높은 이유

중앙일보_2025.5.14.

이러니 드러눕는다…車사고 합의금, 똑같이 다쳐도 최대 64배

중앙일보_2025.5.14.

서울 중장년은 외롭다…한 달여 만에 상담 3000건 돌파

조선일보_2025.5.13.

서울, 도쿄·싱가포르 제치고 '아시아 레저 1위 도시' 선정

뉴스케이프_2025.5.14.

노인

"소득 따라 건강수명 8.3세 차이"…노인 나이 일괄 상향 괜찮나?

KBS뉴스_2025.5.13.

"2032년 고령 자영업자 248만명 전망… 韓 금융안정·경제성장 위협"

조선일보_2025.5.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한국일보_2025.5.11.

"직업 안정성 낮아"…직장인 10명 중 9명 '인생 이모작' 희망
조선일보_2025.5.14.

“회사가 몸에 해롭다더니”…주52시간 넘게 근무하면
매일경제_2025.5.14.

고령층 계속근로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합리적'
데이터솜_2025.4.29.

“최악의 극한직업은 2030 자영업”...그놈의 유행 믿었다가 가게 잃고 빚부담만
매일경제_2025.5.13.

건강

이혼-사별후 ‘상심증후군’, 여성에 많지만 사망률은 男이 두배
동아일보_2025.5.15.

“젊을 때 찐 살, 평생 간다”…30세 이전 비만, 조기 사망 위험 84% ↑
동아일보_2025.5.14.

10대부터 전 연령 '마음의 병'… 초진 예약대기만 3개월
조선일보_2025.5.17.

기독교 • 종교

예배보다 학업·입시 우선인 10대… 신앙 대물림 멀어진다
국민일보_2025.5.15.

“영적 허기 탓 디지털 중독… 교회가 응답하라”
국민일보_2025.5.16.

개신교인 정치 성향 중도 38% 최다… ‘매우 보수’ 13.5% 그쳐
국민일보_2025.5.20.

트렌드

숏폼 vs 롱폼 콘텐츠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5.13.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뽀빠이스쿨(대표 이상애), 유민상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추천)

02 최적화 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섬김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